

세계 예술만화 100년사 자료(1부) :1900년~1926년

<100 ans de BD>, Pascal Pillecand, Addition Atlas, 1996

파스칼 필간드(Pascal Pillecand)

박향순 역

(세경대학 애니메이션과 교수)

I. 서론

II. 초기 만화사 분석(1900~1926년)

1. 1900-1909년 만화 발단의 사회적 분위기
2. 1900년 유럽에서는 판화 제작이 대중적으로 발달한다
3. 1901년 미국의 신문은 귀족의 손에 달려 있다
4. 1902년 만화,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다
5. 1903년 점점 더 공들여 만드는 판화 원판과 뒤집어진 세상
6. 1904년 만화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7. 1905년 프랑스의 스타틴생 베카 신느(Becassine)
8. 1904 신문이 변화한다. 미국의 일간지는 최초의 칼라판 신문을 발행한다
9. 1905년 벨기에에 만화중앙회가 설립된다
10. 1906년 신문지상에서 만화의 활발한 활동
11. 1907년 세계는 신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12. 1908년 동물만화의 시작, 베에르 리쟁
13. 1909년 각기의 나라는 그들 고유의 스타일을 창안해 낸다
14. 1910년 혼란의 시기에 나온 만화들
15. 1911년 만화 내의 반격
16. 1912년 퍼킨스 가족과 일리코 가족
17. 1913년 일리코 가족이 등장한다
18. 1914년 부조리한 세상을 만화로 표현하다
19. 1915년 부조리 논리
20. 1916년 유럽 만화의 태동과 다양한 형태
21. 1917년 가족적인 기사들
22. 1918년 종전에 따른 만화의 발전과 근대의 시대
23. 1919년 미래에 알려진 모습들
24. 1921년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만화들의 등장
25. 1922년 만화의 사춘 사진소설
26. 1923년 불운한 어린이 주인공의 만화 유년시절이 신화적 성격을 제시한다
27. 1924년 2명의 어린이 만화가 세계를 혼돈다
28. 1925년 새로운 영웅들의 등장
29. 1926년 두 명의 만화가가 그들만의 데생기법을 사용한다

III. 결론

1. 서론

초기의 그림들은 원시적이면서도 이상하게 현대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기묘한 것에서 만화류의 특성을 낳았고, 이후 근대의 만화는 인물의 대사를 나타내는 둥그런 테두리 모양의 말칸을 삽화 속에 그려넣는 것으로 만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만화가 예술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표현방식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 이후로 만화는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세기 초 몇십 년간 비천한 만화는 학문적인 세계에 감히 뛰어들지 못했다. 기껏해야 역사 교재에 가끔씩 등장하는 정도였다. 간혹 만화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알파벳을 외우기에는 적합하군…”이라고 혹평했다. 그들은 만화는 거칠 뿐 아니라 퇴폐적이고, 난폭하고,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만화는 영화와 유사성이 있어 그것은 모든 결점과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질 수도 있다. 어리석고, 사납고, 저질이고 거의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신문과 출판계에 경제적인 필요성으로 속박이 강요되었다. 시장조사 결과 그들의 법은 더 자극적이고 더 난폭한 것을 강요하므로 대중의 견해와 검열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만화의 증가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한편, 확신에 차서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장르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만화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면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모두 호의와 신랄한 비판 속에 공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화의 짧은 역사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들을 선택하여 보도록 하자. 그리고 시대의 경향, 일화, 인물 들과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온 만화가들을 알아보고 특히 만화의 역사적 상황,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에 중점을 두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단적인 예로 제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라는 슈퍼 영웅의 등장과 점령군에 의한 경제적인 포위에 의해서 끝나게 되었고 프랑스-벨기에 학파의 발전을 유리하게 하였다. 같은 사회적인 구조 반체제주의자 또는 순응주의자들의 운동은 미국의 전위활동에 영국과 이탈리아의 대중 출판물이 가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만화들을 시사했다. 또한, 청소년 세대들이 정신 공동체를 반영하는 만화문화 속에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지를 확인하는 것도 인상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근대만화가 역경을 버텨내고 한층 더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짚어보기로 하자.

근대의 만화는 인물의 대사를 나타내는 둥그런 모양의 말풍선을 삽화 속에 넣은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만화가 예술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표현방식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그 이후로 만화는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만화예술사’ 부분에서 만화가 역사적 상황에서 특히 정치·경제적인 상황에 중점을 두면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 그 시대의 경향, 만화가, 만화사건 등을 골라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초기 만화사 분석(1900년~1926년)

1. 1900-1909년: 만화 발단의 사회적 분위기

프랑스는 20세기초부터 1941년까지 황금의 시대였다. 프랑스의 안정화는 번성과 평화의 기간이었다. 파리는 입체주의, 영사기, 아르 누보 스타일의 등장으로 예술 창조에 있어서 세계적인 중심지처럼 보였다. 그 10년이란 기간은 또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다. 부르주아에서는 중간계층이면서 정치적으로는 무관심한 새로운 계층이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진보적 교육관, 안정된 결혼관, 출생률의 제한 같은 사회적 모델을 새롭게 제시한다. 당시 미국에서 이민이 두드러지는 현상이었고 분위기는 유럽과 비슷했다. 즉 간신히 쾌적한 생활에 도달한 부르주아 중간계층은 존재의 기쁨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이용한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신문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신문도 더 다양해지고 조직화되었다. 그것이 신문의 발전이고 만화의 탄생과 관계가 있는 특별한 사회적인 환경이다. 즉, 그것은 주위 환경의 반영, 나라와 개인들 사이의 통합의 특징이며, 현대의 어려움과 모순에 대한 메아리이다.

2. 1900년: 유럽에서는 판화제작이 대중적으로 발달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판화산업이 대중적인 예술로서 모든 것에 앞서 있었지만, ‘유머’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 조금씩 파고들어 발전해 나간다. 스위스 천재만화가 톱퍼(Toppger)는 19세기 초창기에 근대 만화를 발명했다. 그는 각각의 페이지에 10개의 삽화가 들어가는 작은 그림책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또 혜성에 몰두하는 페스터스 또는 매우 희기한 나비를 찾으러 다니는 크립토포가머와 같은, 어느 한 부분에 미쳐 있는 인간들이나 변덕스러운 인간들의 모습을 그렸다. 그 시대의 미학적 관습과는 거리가 먼 텍스트와 그림들은 가벼운 사회풍자와 유머로 가

득 찬 모험담들을 급격한 변화를 주어가면서 이야기한다. 프랑스에서 통속적인 교훈 판화인 에피날 판화가 너무 장황한 것에 비해, 그림이 있는 유머는 많은 대중들을 그 형식에 사로잡았고,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였다. 만화가 크리스토프는 “나는 적어도 어린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만큼 어른을 위해서도 그렸다”고 말했다. 그는 익살스러운 유머를 가지고 텍스트와 그림을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그 시대에 프랑스의 학교들은 아름다운 시와 고전주의 작가들에 대한 존경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쳤다. 크리스토프도 그 스스로 부적당한 인용문들, 말장난들과 풍자들이 다양함을 가르쳤다. 그는 해체트 출판사에 의해 1873년 창간된 《르 주르나르 드 라 주네제》에 데뷔를 한다. 그런 후에 1889년에 열린 세계적인 전람회에 아흐망 코린의 삽화가 들어가는 신문인 《르 페티프랑새즈》에 「라 파일 르 페노위라드」를 내놓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 페노위라드 가족은 계속해서 「리 사뻐 사멤범」, 「르 사방 코쉬너」, 「프릭 옛프력」과 「르 바롱 드 크라모이쉬」를 내놓는다. 아스테릭스는 더 나중의 경우이기 때문에 치스토페는 재미와 여러 단계의 해석을 제공하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암시로 가득 찬 프랑스인다운 유머를 만들어낸다.

3. 1901년: 미국의 신문은 귀족의 손에 달려 있다

신문에서 조셉 폴리처와 윌리엄 랜돌프는 만화가 가지는 영향력을 일찌감치 알아챘다. 역시 이 천재적인 투자자들의 손에 미국 신문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미국에서 이민은 다수의 사람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삽화가 들어간 신문의 시리즈물들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일반적으로 ‘코믹’ 또는 ‘재미있는 것’이라고 부르는 이 신문들을 사람을 웃게 만들고 기분을 달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894년부터 잠옷 차림의 뺨뺨머리 장난꾸러기의 모험담을 삽화로 그린 셀레브리셀 시리즈는 ‘At the Circus in hogan’s Alley’를 출판한 폴리처에 의해 《The New York World》 일간지에 연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1896년에 잠옷이 생생한 노란색으로 채색되었기 때문에 ‘The Yellow Kid’라는 별명이 붙었다. 1900년 3월에 《뉴욕 저널》지의 프래드릭 부어 읊퍼는 거지에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고난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Happy hooligan」를 발표한다.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이 시리즈물은 찰래 채플린(Charlie Chaplin)의 첫번째 영화에 영감을 준 원천이다. 1896년 마코니는 TSF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프랑스인과 영국인들은 1898년에 라디오로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1903년 그것은 미국과 대영제국의 차례가 된다. 즉 라디오 중계방송은 전세계적으로 전파된다. 언어가 다른 나라들이 서로

를 이해하는 방법은 잡지의 그림판화를 찾는 것이었다. ‘카툰’이라는 단어는 존 리치의 풍자적인 크로키가 있는 첫번째 카툰지가 출판되던 해인 1843년에 미국에 있던 것이다. 독일에서 천재적인 선구자 빌헬름 부쉬의 풍자만화는 1865년 이후로 매우 잘 팔렸다. 그리고 카젠잠머스 키즈의 미국 사내아이들은 50년 더 빨리 내놓은 독일의 막스 언드모티즈의 어린이들과 하나도 닮지 않았다. 익살스러운 만화가들의 기술은 밀납인형박물관의 레아나우드 영사기로 그 다음에는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에 의해 영상이 있는 무언극으로 변해 간다. 시각적인 개그가 삽입된 영상이 있는 이야기들은 시네마 파더 덕분에 1895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만화가 Christophesms 영화화된 그의 개그들 중의 하나를 1899년에 본다.

4. 1902년: 만화,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다

1) 만화는 미국인의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

미국 만화의 근대화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드러나는 해악적인 시리즈물에 의해 가치를 가지게 된다. 프레드릭 부어 오퍼(Frederick Burr Opper)는 미국을 횡단하는 두 명의 프랑스인의 고난을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한 알폰소(Alphonse) 가스통(Gaston)으로 미국에 데뷔한다. 풍자유머를 마울라 멀(Maulla Mule)의 우스꽝스러운 모험들을 통해 표현한 오퍼는 크리스토프(Christophe)의 페로위라드(Feunouillard) 가족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비슷한 편견으로 가득 차고 보수주의자이며 둔한 두 명의 주인공 알폰소와 가스통을 그리고 있다. 이 시대부터 구제도와 신제도 사이에는 거대한 경쟁의식이 있었다. 유럽 사람들은 그들의 환각을 미국식으로 풍자하고 공상적인 꿈으로 만든 것을 보면서 상상하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완전히 뒤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미국인들을 그들의 많은 소설들, 익살스러운 만화들과 성공한 신문소설의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반면 대부분이 이민자들의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반복되는 생활과 개혁에 직면한 중산층 미국은 파리 사람들이 우습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며, 그들의 반응을 상상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2) 근대의 사치와 안락함

만화가 리처드(Richard R. Outchult)는 《뉴욕 해럴드월드(New York Herald World)》에 1926년까지 계속해서 성공을 한 「버스터 브라운(Buster Brown)」을 내놓는다. 황금색 곱슬

머리에 가장 좋은 세일러복을 입고 겹모습은 어린아이인 악마로 등장하는 버스터는 타이지(Tige)라고 불리는 개를 충실한 공범으로 데리고 있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세상에서 근대 안락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중앙난방식 빌라에 전화, 커다란 차를 가진 집들을 돌아다닌다. 버스터는 상류사회를 교묘하게 움직이지만 그의 부모님의 집에 더 큰 불행이 일어나는 것은 막지 못한다.

5. 1903년: 점점 더 공들여 만드는 판화 원판과 뒤집어진 세상

그 후 모든 나라의 만화가들은 판화의 그래픽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 만화가 주는 시각적 즐거움 제공을 정교한 기술을 개발한다. 미국에서 많은 시리즈물들은 흑백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일간신문의 일요일 부록은 칼라 인쇄한 표지로 발행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 후 우리에게 친숙한 기술들이 선보인다. 간결하게 시퀀스상으로 이야기 나누기, 움직임, 캐리커처 등이 그것이다. 이 기술의 사용으로 19세기말 삽화를 더 엄격하고 풍자적인 특징을 안겨주었던 그림 윗부분의 둥그런 테의 사용이 대부분의 삽화에서 없어졌다.

프랑스에서는 1903년 페야르(Fayard)출판사에서 벤자민 라비에(Benjamin Rabier)의 《주네세 일뤼스트레(La Jeunesse illustee)》(청소년을 위한 삽화가 들어간 신문)가 발간되었다. 에피날 판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레 벨 이마쥬(Lea Belles Image)」는 같은 출판사에서 일년 후에 출판되었다. 이 두 제목은 그 시대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되었다. 또 어린이를 위한 삽화가 들어간 신문이 계속 발간되면서 풍부한 창조성이 개발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어른용 출판물에 부록형식으로 들어간 만화에 제목을 붙이는 것이 자라잡기 시작하던 개화기였다. 예를 들면 빠띠 주르날 일뤼스트르 들 라 주네스(Perit Journal De La jeunesse) 플랑드르인 귀스타브 피에뜨(Gusyave Fillette), 르 주디 들라 주네스(Lr Jeudi de La jeunesse) 등이다. 버즈비크(Vergbeek)에 기원한 미국인 만화가들은 독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하기 위해 ‘Upside-downs’ 글자 그대로 ‘위로-아래로’라는 구호를 사용하여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각각의 에피소드들은 판화의 끝을 뒤집어서 읽는다. 그리고 나서 독자는 계속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 잡지를 돌린다. 즉 같은 그림들을 뒤집어 읽음으로써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한다. 예를 들면 땅에 먼지가 눈, 비, 허브의 새싹으로 되는 식이다. 두번째 설명은 꼭대기에 인쇄되어 있다. 만화가의 기술적인 재주부리기인 이러한 만화들은 1905까지 계속된다.

6. 1904년 만화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만화라는 부분에 몰두하는 전문가들, 이 새로운 세대는 서양의 모든 나라에서 발전하다.

미국에서는 미국 풍자만화의 대가들 중 하나인 프레드릭 부어 오퍼(Fredenick Burr Opper)에 의해 출판된 「노새 머드(Maud The Mule)」가 시작된다. 그는 매우 극단적이고 정형화된 인물을 그린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머드였다(And Her Name Was Maud)’라는 표제가 붙은 그의 시리즈에서 그는 그의 모든 적들을 뒷발로 차는 심술궂고 고집이 센 이동물의 복수를 유머스럽게 이야기한다. 맥마누스(McManus)는 「새로운 리워드 부부와 그들의 아기(The New Lyweds and Their Baby)」를 출판한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고전이 되어버린 것으로, 그들을 항상 괴롭히는 밭살맞은 그들의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는 부부의 이야기다. 항상 사건과는 동떨어지게 그 부부는 그들의 아이를 걱정한다. 아이의 어머니는 꼭 맞는 블라우스, 가느다란 허리, 애교부리는 말, 핑장히 많이 부풀린 머리를 한 그 시대의 우아함의 표본이었다. 영국 함스워드(Harmsworth) 편집장은 1888년부터 이미 그 세대의 다른 삽화가 들어간 신문들처럼 4장은 그림을 넣고 4장은 원고를 넣어 흑백으로 인쇄한 8장짜리 코믹 컷을 출판한다. 그의 성공과 책의 놀라운 판매량은 영국 경제시장을 활발하게 한다. 모든 편집장들은 부록을 출판하거나 매우 잘 팔리는 그림만 있는 표제의 부록을 출판한다. 1904년 데일리 미러(Daily Mirror)는 계속 연재되는 최초의 만화를 출판한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시리즈물 「더 타임즈 픽처스 포스트 카드 1호(The Times Pictures Postcards NO.1)」를 발행한다. 36년간 발행된 만큼 굉장한 성공을 한 삽화 신문 《픽(Puck, 장난꾸러기 요정)》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함스워드(Harmsworth)에게는 계속되는 성공이 뒤따른다. 코믹 컷이 처음부터 미국인의 시리즈를 취한 것인 반면 《픽》과 《픽 주니어》는 오리지널 영국식 만화를 보여준다.

7. 1905년 프랑스의 스타탄생 베카 신느(Becassine)

라 스메 드 쉬즈뜨(La Semaine de Suzwtte)는 세상을 조금씩 발견해 가는 브르통의 민속 의상을 입은 서투르고 순박한 시골사람이다. 베카신느의 대본은 랑그로(Languereau) 편집장 자신이 쓴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자클린 리비에르(Jacqueline Riviere)를, 다음에는 꼬뜨리(Caumery)라는 가명을 사용한다. 만화작가는 화가 핀콘(Pinchon)으로 암시하는 요소들이 가

독 칸 그림처럼 장면마다 각각의 그림을 그려넣었다. 그는 대사를 넣는 등근테를 사용하지 않았다. 베카신느는 미국식 ‘코믹’ 장르의 그림의 변혁보다는 에피탈 판화그림의 전통에 더 가까운 그림 이야기이다. 커다란 치마와 나막신과 머리쓰개를 하고 다니는 베카신느는 순진함을 천성으로 지니고 브뤼따뉴에서 태어났다고 아나이즈 라보르네(Analk Labomez)는 말한다. 그녀는 그랑 데르(Grand’Air) 후작집에서 실수를 거듭해 가면서 가정부처럼 산다. 사실 베카신느의 실수는 일하는 여성의 어려운 상황과 귀족계급의 선입관과 마을 농부들이 느끼는 실망을 가벼운 터치로 많은 삽화들을 그려넣은 것이다. 베카신느는 세계 일차대전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그녀는 같은 시대에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섹시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는 성공을 거둔다. 왜냐하면 베카신느가 만화책으로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992년에 가야 책으로 출간이 된다) 출판과 재판의 계속되는 성공으로 인한 이 시리즈물의 막대한 성공은 여러 단계의 독자층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유머를 수집한 것이 사회적인 관계를 풍자하는 것이 어른들을 위한 만화를 만들게 했다.

8. 1904년 신문이 변화한다. 미국의 일간지는 최초의 킬라판 신문을 발행한다

파나마 운하로 인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으로 인한 파란 많은 국제 현실이 만화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현실을 삽화로 그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아더(Arthur)항 공격은 전세계에 석판화와 수채화법을 통해 신문에 나갔다. 이때 화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마티스는 앵트로페(Aaint-Tropez)에서 침묵과 쾌락, 사치를 웨라(Seurat)의 점묘화법 기술을 사용해 그린다. 야수파의 작품은 몇 달 뒤에 발표된다. 그리고 와도(Watteau)를 이어받은 앵티미즘의 화가 핑땡 라뚜르(Fantin-Latour)는 이 해에 죽는다.

9. 1905년 벨기에에 만화중앙회가 설립된다

유머작가이며 유명한 허풍선이인 ‘트리스탄 버나드(Tristan Bemard)’가 「애인과 도둑」을 쓴다. ‘디 벨케’의 예술적인 건축물이 독일에서 제자들에게 의해 드레스데(Dresde)에 창립된다. 강렬한 색채와 암시적인 흔적들과 솔직한 그들의 작품들은 나중에 언더 그라운드라고 이름지어지는 것의 기원이 되며 아홉 번째 예술이라는 표현의 선구자로 간주될 수 있다. 공상소설의

대가 줄 베르누가 죽는다. 『80일간의 세계일주』와 『해저 2만 마일』에 수록된 오리지널 삽화들과 이야기는 다수 만화를 위한 직접적 영감의 원천이 된다.

10. 1906년 신문지상에서 만화의 활발한 활동: 꿈속의 나라 <Slumberland의 작은 네모>

윈저 맥케이(Winsor McCay)는 꿈을 통해 놀라운 규모의 물건과 사람들을 현실보다 더 진짜같이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다수의 독자들은 《뉴욕 헤럴드》의 주말부록 전 페이지를 장식했던 윈저 맥케이의 「슬럼베르 섬의 작은 네모」를 1905년부터 즐겼다. 맥케이는 세련되고 미적이고 색채와 움직임이 풍부한 만화를 완성해 냈다. 평범한 풍경으로 페이지를 채우면서도 꼼꼼하게 그려진 만화는 상상 속에서 헤매는 독자와 그들의 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시나리오의 항상 같다. 첫장의 그림에서 잠옷을 입은 어린아이 네모는 자고 있다. 꿈은 네모를 신기한 세상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서는 갑작스럽게 다시 되돌아온다. 왜냐하면 그는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잠이 깨기 때문이다. 꿈속 나라에서의 여행은 네모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이상한 세계 그러나 현실과는 그다지 멀지 않은 세계를 발견하게 한다. 그것은 ‘미국인들의 꿈’의 한 예이기도 하다. 아라베스크풍의 새로운 예술형태의 예인 「슬럼베르 섬의 작은 네모」 시리즈는 1911년에 중단된다. 그리고선 《뉴욕 헤럴드》에 새로운 판으로 되돌아오기 전에는 ‘놀라운 꿈의 섬’이라는 제목으로 허스트(Hearst) 편집장에 의해 발간된다. 그리고 재판될 때까지 대중에게도 잊혀진다.

11. 1907년 세계는 신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서양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 시리즈물이나 만화작품의 연속간행 형식(그 당시가 최초였다)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미국에서 20세기초에 발간된 많은 시리즈물들은 계속해서 발행된다. 새로운 세대에 맞는 인기있는 영웅들이 많은 일간지의 주말부록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독자들은 주말부록 속에 코믹으로 가득한 새로운 에피소드들을 인내하며 ‘기다린다.’ 단계가 계속되면서 주간지에 시리즈물들이 삽입되기도 한다. 버드 피셔(Bud Fisher)가 《산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지에 에피소드들을 연속해서 내보내는 「미스터 머트(Mr Mutt)」를 일간지에 발행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성공한다. 유럽에서의 신문사들도 소

심하게나마 본보기를 따르기 시작한다. 에파나에서는 마드에 지사를 둔 ABC일간지가 「라장 뜨 머뉴다(La Gente menuda)」를 미국식 삽화가 들어간 부록으로 발간하고 「브랑코 에 네그로(Blanco y Negro)」와 「엘 데펜졸(El Defensor)」도 다른 일간지에 같은 식으로 발간된다.

12. 1908년 동물만화의 시작, 삐에르 리땡: 모범적인 소녀들과 영악한 파리의 건달들

대조되는 두 개의 경향들이 프랑스의 만화들에서 발표된다. 반항적인 건달들의 개그로 가득한 이야기들과 동시에 슬기로운 젊은 소녀들의 이야기가 신중하게 풀어진다. 포르똥(Louis Forton)이 「레 삐에 니클(les Pieds nicketes)」을 프랑스의 《레삐땅(L'Epatant)》지에 발표한다. 처음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의성어, 의태어를 넣는 둥근 테를 사용했다.

필로샤르(Filochrd), 크로끼농(Croquignol)과 리블댕그(Ribouldingue)는 1948년 《펠로(Pellos)》지에 성공을 가져다주면서 1948년에 발간된다. 정말로 못생기고 저속한 도전자들 즉 이 반영웅들은 그 동안의 관습을 뒤엎는다. 이 시리즈물은 이 시대 프랑스 신문의 고전주의에 대항한다. 직접적인 유머는 독자층에게 갑작스러운 웃음을 유발시킨다. 생활 속에서 잘 먹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던 「삐에 니클」의 만화 주인공은, 애꾸눈이고 작고 약삭빠르며 포동포동한 필로샤르, 마르고 지식이 좀 있고 코안경을 쓴 크로끼농과 수염이 텃수룩하게 덮인 리블댕그, 이 세 명이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돌아다니고 모든 직업을 접해 보고, 크고 작은 가능성들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많은 경험을 한다. 죠 발(Jo Valle)은 「L'Espigle Lili」를 세세하게 구성한다. 처음의 에피소드는 앙드레 발레(Andre Vallet)가 그림을 그리고, 《Fillette》주간지에 1909년에 발표된다. 이 주인공은 알렉상드르 제라르(Alexandre Gerard)의 죽음과 함께 1972년에 사라진다. 그 후 다섯 명의 만화가와 적어도 세 개의 다른 잡지들이 제2차 대전 후의 발행을 책임졌는데, 에스에글의 이름이 사라지고 릴만 남아 릴모험으로 발행되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전혀 재미없었다. 그는 하숙비를 내기 위해 익살을 다양화하면서 비난을 맞았다. 만화가 계속되면서 이야기는, 말투와 시선이 변했다. 결국 몸에 꼭 맞는 터틀넥과 미니 스커트를 입고 세상을 여행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마르고 우습고, 영악하고 익살스럽고 매혹적인 그녀는 그 시대의 젊은 시절에 한번쯤은 사랑해 봄직한 젊은 여성의 표본이 된다.

13. 1909년 각국의 나라는 그들 고유의 스타일을 창안해낸다

만화이거나 혹은 이야기에 삽화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들의 모험을 열심히 그려낸다. 영국에서 파란 조끼를 입은 반항적인 작은 코끼리는 굉장한 성공을 거둔다. 상냥하고 유머가 넘치는 삐에르 라뻡(Pierre Lapin)과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열광시켰다. 베아트리스 뽀뽀(Beatrix Potter)에 의해 다른 만화보다 10년 일찍 창안된 이것은 시골의 아픈 어린이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1902년에 편집장 프레드릭 워른(Frederick Warne)에 의해 출판된다. 이것이 오늘날 25개 콩트 시리즈물의 시작이다. 이탈리아에서 꼬리에르 데이 피콜리(Corriere dri Piccoli)는 문학적인 대사가 들어가는 둥근 테가 있는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이 둥근 테가 만화에 힘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둥근 테는 그림에 텍스트를 합치고, 인물의 입에서 대사가 나오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14. 1910년 혼란의 시기에 나온 만화들: 크라지 캣, 유린하는 자

감수성이 예민하고, 복수심이 강하고, 약삭빠른 쥐를 사랑하는, 제정신이 아닌 듯한 고양이 주인공의 좌절을 그린 《뉴욕 저널》의 유머작. 《뉴욕 저널》에서 조르쥬 에리만은 다소 굵주린 그러나 사랑스러운 고양이 ‘크라지 캣’의 이야기를 만든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작은 쥐(이나츠)와 집 지키는 개(오피자 핏프)도 등장한다. 이 만화는 비현실의 세계로, 우스꽝스럽고 비논리적이며 비상식적인 필체로 그려진다.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크게 성공적 인기를 끈 것은 아니었어도 연재는 잘되었다. 물론 그 속의 비상식적인 세계는 오랫동안 대중에게 친숙해지지 못했다. 1911년, 크라지 캣은 스타가 되었고 신문에 실렸다. 1916년부터 그것은 에리만에 의해 만화영화로 제작되었고 작품의 각색은 콜럼비아의 파라마운트사에 의해 이뤄졌다. 1919년, 크라지 캣은 일요판에 실렸고 에리만이 사망한 1944년까지 성공리에 연재되었다.

15. 1911년 만화 내의 반격

전쟁 전인 이 시기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이 1911년에 눈에 띄는 어떤 만화 시리

즈도 나타나지 않은 이유였을까? 미국에서 유행하던 시리즈물들은 주간지의 부록이나 일간지의 주기적인 발행 속에서 계속 나왔고 동시에 삽화가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를 계속 만들었다. 그러나 혁신은 없었다. 그래도 기술적인 방법들이 계속해서 발전했다. 그 방법이란 대사를 쓰는 등근 테를 사용한다든가 시문이 인쇄될 때 칼라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다. 국제적인 전쟁의 전조가 암암리에 파리에서 드러났다. 이 시기의 분위기는 많은 만화가들, 특히 1960년대에 매우 다른 스타일을 추구한 프랑스 베데이스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줬다. 피차르, 타르디와 그외의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분위기를 민감하게 다뤘다.

16. 1912년 퍼킨스 가족과 일리코 가족: 미국에서 ‘조합’이 탄생했다

1912년에 허스트는 만화를 개척하기 위해 그 자신이 신문사를 창간하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신문사는 다른 편집장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 시기 두 개의 거물급 미국 신문사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와 조세프 폴리처는 만화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성공을 위한 철저한 투쟁을 벌인다. 그들의 새로운 무기는 ‘조합’이었다. 랜돌프 허스트는 1912년 신문사를 창간했는데 이것이 1914년 KFS가 된 국제 뉴스 서비스다. 이 조직은 만화를 외국에 보급하고, 미국 만화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결국 이 조직의 임무는 만화를 전세계에 전매하고 만화의 독점권을 개발하는 것이다. ‘조합’들은 시리즈물들의 주인이 되었으며 만화가와 시나리오 작가들은 그들의 고용인이 되었다. 신문사의 각각의 그룹은 그들 고유의 조직을 결성했다. 허스트의 KFS뿐 아니라 UFS, 시카고 트리뷴, 뉴욕 신문 조합, 유니티드 퓨처 등이 있다. 뉴욕 일간지에 우스꽝스러운 퍼킨스 가족이 등장했다. 파우와 마우리는 별명으로 불리는 제각기 괴상한 옷차림을 한 사무엘과 수지에게는 폴리는 이름의 영악한 딸이 있다. 폴리는 전형적인 어린 소녀가 아닐 뿐 아니라 그녀가 마음대로 부리는 친구들도 있다. 처음에 머리가 둥그런 인물들의 자연스러운 그레픽은 몇 년 후인 1918년부터는 혁신적인 것이 된다. 만화가 클리프 스트레트는 추상미술에서 영감을 얻어 기하학적인 형태를 채용해 오고, 영똥하고 우스운 이 시리즈물에 짜릿한 많은 이야기를 덧붙여 서거의 초현실주의적인 별난 세상 속의 인물들로 발전시켰다. 각각의 만화 하나 하나는 그림처럼 구성되어 있고, 움직임이 그럴 때는 세부사항을 잘 표현했다. 처음에 ‘적극적인 폴리’, 나중에는 ‘폴리와 그녀의 친구들’이라고 불렸던 이 시리즈물은 1935년 후에 ‘뿌페뜨와 그녀의 가족’이라고 번역되어 프랑스에서 출판되었다.

17. 1913년 일리코 가족이 등장한다

맥 마누스의 성공한 만화들 중 「아빠 양육하기」는 많은 이들이 아는 만화가 되었고 그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시리즈물들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에서 「일리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아빠 양육하기」 시리즈물은 맨 마누스의 데뷔작이다. 미국의 부르주아 가족인 지그스 가족(일리코 가족)의 사건 해결 과정이 상세하게 펼쳐진다. 늙은 벽돌공과 그때까지 세탁부였던 부인이 복권 당첨으로 졸지에 백만장자가 된다. 그들은 벼락부자가 되어 상류층에 도달한다. 그의 아내 마직(벨베)의 의해 학대를 받는 지그스(일리코)와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그의 딸, 그들은 오래 된 친구들이 그들을 알아보기 전에 사라져버린다. 이 시리즈물은 잘 어울리지 않는 늙은 커플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쟁이가 되려는 그의 딸과, 그 딸이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빛의 충동을 세세하게 분석해 놓았다. 놀라운 유행 카탈로그와 장식, 현대의 스타일과 화려한 장식이 쓰인 건축술 등이 작품 속에서 보여진다.

굉장한 공을 들은 그래픽은 작가가 일지감치 예상했던 대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세상에 가장 알려진 미국 만화중의 하나가 된다. 프랑스에서는 매우 폭넓은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오로르 일간지에서 30년 동안 이 만화를 출판한다. 미국 일간지에 출판된 이 시리즈물은 집단의 무의식속의 사상들을 점점 더 알아맞히면서 성공을 거뒀고,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원본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보여주는데 성공한다. 졸지에 벼락부자가 되고 엄격한 가정을 이끄는 남편을 구체화한 지그스(일리코)는 독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다. 이 만화의 성공요인을 들자면, 당시 미국의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경향을 제대로 잡아낸 힘있는 편집장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조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 1914년 세상을 만화로 표현하다: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영국의 유머

영국은 미국만화에 비해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많은 만화를 일찍 창작해낸다.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어린이를 위한 만화가 풍부했다. 그러나 오로지 어린이만을 위해 창간된 선구자격 잡지인 ‘레인보우’ 잡지는 1914년에 처음으로 창간되었다. 첫 출판부터 레인보우 잡지는 마케팅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왜냐하면 첫 발매 책과 선물을 함께 제공했기 때문이다. 레인보우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나타내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네모나게 자르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왕실의 어린이를 처음으로 그렸다. ‘데일리 미러’지와 ‘선데이 픽토리얼’지는 부록으

로 어린이를 위한 인쇄물을 발행하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 기간에는 미국의 J. S. 베이커, 오스틴 B. 페인, 코믹한 보육실을 표현한 F. 호라이빈과 같은 만화가의 재능이 두드러지고, 타이거 팀, 브윈 보이즈, 히포 보이즈와 히포 걸스, 즐리 조, 헬 벨 호라스와 스퀘이크, 위 그레드 등과 같은 우수한 만화 속의 인물들이 탄생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빌리 번터(레아 글루튼)

‘빌리 번터’는 1908년부터 시나리오 작가 H. 미셜과 만화가 F. 리처드에 의해서 영국에서 창간되었고, 첫 번째 판이 출판되었다. 1939년부터 ‘낙크아웃 코믹’ 안에 간행되었고, 1961년에는 ‘빌리 번터 낙크 아웃’이라는 고유한 잡지를 가진다. 뚱뚱한 빌리와 포동포동한 베씨가 등장하여 저지르는 실수가 펼쳐진다. 개그, 오해등을 무성영화의 세계를 예상하게 하는 상황의 코믹이다. 프랑스에서 베씨는 스타가 된다. ‘레아 글루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라인이라는 시리즈물의 이름으로 출판되었고, 1950년과 1960년대에 나노와 나네뜨로 출판된다.

19. 1915년 부조리 논리

미국만화는 조금씩 고유한 관례, 독특하고 기능적인 방법, 그리고 독자적인 유머를 만들어간다. 각각의 시리즈물은 닫혀진 세계를 구성한다. 같은 인물을 다시 만나고, 일정한 놀이 규칙이 적용되고 때로는 만화가를 헛소리 환자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하나의 닫혀진 세계를 구성한다. 우주의 풍경, 믿을 수 없는 상황, 단어 놀이와 의성어, 의태어는 선택 사항이었다.

1915년에 창간된 ‘크레이지 댓’ 또는 ‘봄 맥 뉴트’ 같은 여러 개의 시리즈물에서 이런 세계는 종종 나타난다. 전통적인 미학이나 도덕, 관례와도 거리가 먼 만화 속의 부조리한 세상은 유럽의 초현실주의 그림과 20년대의 시에서 창조된 세상과 가장 근접해 있다. 아방가르드적으로 표현하는 유행은 부조리하고, 무미건조하고, 합리주의적인 환경에 대한 꿈의 반작용이다.

‘봄 맥 뉴트’는 상식을 뒤엎는다

봄 맥 뉴트는 운명의 희생자이다. 순진하고 놀랄 만큼 용감한 소년은 냉혹하고 엉뚱한 세

상에 대항한다. 간혀있는 미친 학자들은 그들의 고약한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시계추를 돌려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톱밥 푸딩을 주고 인질로 잡힌 해적들을 돕는다. 그들의 고질적인 어리석음과 자발성, 비상식적인 변덕으로 붉은 희생자로 표적이 된다. 1915년 뉴욕 메일에 처음으로 등장한 ‘봄 맥 뮤트’는 KFS에 의해 다시 발행된 때부터 매우 폭넓게 발행된다. 이 우스꽝스러운 시리즈물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1933년부터 규칙적으로 발행되었다. 미국에서는 매우 유명하게 되었고, 실제로 결코 발행된 적이 없는 프랑스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

20. 1916년 유럽만화의 태동과 다양한 형태: 유럽만화의 요람기

유럽만화가들은 만화 활동을 조금씩 시작한다. 그러나 유럽의 이 예술은 장년기에 도달한 미국과는 차이가 있었다. 프랑스의 많은 삽화가들은 우스꽝스러운 유머, 짧은 시퀀스, 그림들, 텍스트와 시각적인 개그의 직접적인 결합이라는 만화적 방식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집 방식에 더 충실했다. 만화가이며 유머작가인 벤자민 라비에(1869-1939)는 동물을 소재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텍스트와 대사를 쓰는 둥근테 안에 없다고 할지라도 글의 그림은 만화처럼 움직이고 엉뚱하다. 라비에는 성공을 거둔다. 그는 화이아르가 경영하는 ‘라 쥬네스’에 삽화를 그리기 시작하고 나서 ‘라 스맹 드 슈제트’에도 삽화를 실는다. 특히 1916년 <자유로운 동물들> 후에 <정쟁의 개 플라보>가 발행된다.

만화영화

에스파냐에서 근대 만화의 시작은 1916년 ‘쥬아니또’ 와 ‘샤홀로’의 만화였고, 샤홀로 잡지가 간행된다. 그것은 샤홀로의 모험을 만든 만화가 로조에 의해 영화로 전환된다. 만화 또는 영화의 인물들은 만화의 주인공으로 변환된다. 최초의 인물 중의 하나인 샤홀로, 펠릭스와 샤프트, 조로를 그 예로 들 수 있고, 디즈니의 미키 등의 인물이 모두 해당된다. 종이 위의 영화 장면은 명백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맥 안에 자리를 잡아야만 한다. 10,20년대에서 영사기를 이용한 상연 즉 영화 화면은 희귀한 것이었다. 게다가 신문과 잡지가 절정에 이른 반면 영화는 마을 밖에 존재하는 예외적인 존재였다. 신문은 오늘날의 텔레비전과 같은 인기를 누리며 대중성을 획득했다.

21. 1917년 가족적인 기사들

새로운 세상의 발전, 맹렬한 증가,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모순과 갈등 없이는 될수 없었다. 새로운 시리즈물들은 이러한 것들을 반영했다. <미홀리통 가족>처럼 프랑스에서 알려진 '시드니 스미스'의 검프 시리즈 물은 시카고 트리뷴에 1917년 출판된다. 시드니 스미스는 만화가이며 시나리오 작가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30였다. 그는 18세부터 <카툰>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미국인들은 이미 올드독약으로 그를 알고 있었다. 그래픽의 혁신과 저속한 어투를 섞어서 쓴 검프는 충격을 주었다. 상황과 대화는 오히려 세련되지 못했다. 가족이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이 시리즈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초라함에 대해 무겁게 주장하며 지금의 많은 시리즈물처럼 미학적인 면에서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많은 것을 추구한다. 구스 에드슨에 의해 1935년 간행된 이 시리즈물은 1959년까지 24년간이나 발행된다.

가치의 하락

전통적인 구조들, 가족적인 관계들, 부모의 권위는 가치가 떨어진다. 미국의 만화는 경제공황의 위협과 부부의 다툼을 차츰차츰 영상화한다. 경정적으로 <코믹>장르가 항상 상한가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다. 대중은 1917년 시드니 스미스의 검프를 발견했고 1918년 H. J. 튜릴의 버글 가족에 눈을 돌린다. 튜릴은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절망과 건달들과 권위가 사라진 남편과 항상 요구만 하는 주부가 변화하는 것을 조롱과 유머로 소묘한다.

22. 1918년 종전에 따른 만화의 발전과 근대의 시대

유럽은 전쟁의 후유증에 의해 두드러지게 어두운 해였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경제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이시기에 공장에서는 자동차의 일괄 조립작업이 행해졌다. 새로운 산업회사가 구성되었고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프랑크 킹'의 <가솔린 알레이>. 이 시리즈물의 인물들은 자동차에 집착한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자동차의 기능적인 면을 공부했다. 그들은 자동차에 대해 말하기 위해, 그리고 모터의 조립을 공부하기 위해 그것에 깊이 빠졌다. <가솔린 알레이> 삽화에 기계적인 흐름은 전혀 없다. <폴리와 그녀의 친구들>처럼 색채가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만화는 동시에 화가의 기술적인 시를 조금씩 차용해오기 시

작한다. 전형적으로 너무 구시대적인 미국인인 ‘가솔린 알레이’는 거의 유럽에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에피소드들이 연결되면서 인물들이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혁신적이었던, 두드러지는 시리즈물이다.

작은 장난꾸러기 바네이 고글

‘빌리 데백’의 <바네이 고글>은 영악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거기에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살아남아 일반적인 성공을 거두는 세상의 또 다른 한 면을 발견하게 된다. 그 속에서는 놀음꾼과 사기꾼, 내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집단을 관점을 달리해 만족스럽고 감동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구식 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우스꽝스러운 작은 바네이 고글은 1934년부터 갑자기 유명해졌다. 오늘날에도 ‘프레드 라스웰’의 시인으로 출판되는 이 시리즈물은 굉장한 성공을 거둔다. 이 시리즈물은 프랑스에서 <글루글루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믹케이’지에서 발행되었다.

23. 1919년 미래에 알려진 모습들

조로와 뽀빠이, 이 2개의 만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이다. 조로와 뽀빠이, 이 2개의 만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이다. 조로는 1919년에 탄생했다. 미국인 ‘존스톤 맥켈레이’의 <카피스트라조의 경기>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이 인물에 대중은 열광한다. 그리고 영화와 만화는 계속해서 조로의 모험을 영상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땅에서 사는 행운의 젊은 남자인 ‘돈 디에고’의 이야기인데 그는 에스파냐의 압제와 싸우기 위해 복수자의 마스크로 변장한다. 조로는 멕시코의 여우를 의미한다. 검은 색망토를 입고 검은 가진 말을 타는 젊은 남자가 등장하는 이 소설은 매우 강한 이미지를 남긴다. 영화화에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조로의 모험을 디즈니 버전의 만화영화로 1958년부터 즐겼다.

뽀빠이 없는 올리브 오일

어리병병한 모습에 아위고 젊은 여자 ‘올리브 오일’은 뽀빠이를 만나기 10년 전부터 살았다.<더 팀블 데아트르>라는 이름으로 된 이 시리즈물 속에서 ‘E. C. 세가’에 의해 1919년에 창작된 올리브는, 카스터라고 불리는 오파와 뽀빠이가 아닌 햄 그라이브라는 약혼자가 있다.카스터는 투덜쟁이이며 바다 문신을 한 선원이다. 뽀빠이는 올리브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

의 이 시리즈물로 유명인사가 된다. 뽀빠이는 미국식 만화의 전형성을 띤 사람중의 하나이다. 처음부터 뽀빠이는 초인적인 힘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뽀빠이와 같이 되고 싶어하였기 때문에 시금치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래서 미국의 시금치 생산자 조합은 뽀빠이 인형을 커다란 조각으로 만든다,

24. 1921년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만화들의 등장: 고양이 펠릭스가 만화에 등장한다

살아있는 듯한 만화를 만드는 오프 메스메르는 <고양이 펠릭스>에 영감을 주는 만화를 그렸다. 그는 은어를 사용하는 등, 콩트처럼 짧고 친근한 언어를 사용했다. 오스트리아인 패트 설리반은 오프 메스메르의 도움으로 <고양이 펠릭스>라는 제목의, 굉장한 성공을 거두는 동물 만화를 1919년에 만들었다. 그리고 1921년부터 이 작고 검은 고양이와 불량한 고양이들이 영국 잡지를 휩쓴다. 신문에서 각 장마다 그들에 대해 얘기하고, 종이위 인물들을 명확하게 나타낸 도면은 특별한 것이 된다. 펠릭스는 그의 친구들-교활하고, 그를 비웃고, 원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금은 공격적인-에 충실하고 그들을 양심껏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물이다. 그는 맛있는 식사와 여성스러운 부드러움에 민감하다. 수코양이의 특유의 기질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내는 재주가 있으며, 그의 의지대로 시간과 공간을 여행한다.

항상 변화하는 평가

패트 설리반에 의해 1935년까지 그려진 만화는 그의 비서 오프 메스메르에 의해 완성된다. 1923년, 고양이 펠릭스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그 주의 만화’가 된다. 그 후 차차 대중의 관심이 둔해지기 시작한다. 1943년부터는 유일하게 일간지 <스트립>에서 1967년까지 출판된다. 이는 활발한 수코양이에게 움직임과 생명을 주는 계기가 되어 동물 영화로 제작되며, 텔레비전에 방송됨으로써 예전의 명성과 평가를 다시 보여주게 된다. 프랑스에서 <고양이 펠릭스>는 전쟁을 전후하여 앨범으로(특히 1930년부터 1940년까지는 아세트 출판사에서, 1979년부터는 파에르 오레이 출판사에서) 등장한다.

25. 1922년 만화의 사촌 사진소설

해마다 조금 더 충격적인 미국의 시리즈물들이 새롭게 나타난다. 그러나 프랑스 독자들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선호한다. 유럽에서는 삽화가 들어간 소설과 이야기가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1950~60년경에 창조된 새로운 장르, 그것이 사진소설이다. 당시의 사진 기술에 의해 섬세하게 실현된 것이었다. 조금씩 사진소설은 다양해진다. 그것들은 만화가 가져온 혁신, 즉 등근테의 사용이라던가 상감법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가로챘다. 만화로부터 받은 영향이 사진소설에 있어서는 혁명과 같은 것이었다. 사진소설 초창기에는 말만 많고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상상력이 가미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독자들의 시선을 자극하면서 출판에 역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만화적인 소설’은 1940년대에 풍미한다. 그것들은 매력있으며 초상정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만화이다.

페트 더 트렘프의 <목종(木鐘)>

삶에 대한 환멸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양심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보낸 부랑자 ‘페트 더 트렘프’는 긴 삶을 산다. 미국에서 20년대 초에 태어난 그는 1932년에 K F S에서 다시 출판되었고, 1963년에 클라렌스 디루셀의 죽음까지 줄곧 편집되어 발행된다. 그의 성공은 후퇴와 공황의 해에 절정을 이룬다. 영원한 실업자, 경찰에 잘 보이지 않는 약삭빠른 인물은 어려운 미국인의 가슴에 메아리를 울린다. <라클로쉬아빠>라는 제목 아래 전쟁전의 프랑스에서 발행되었고, 그리고 나서 1980년경에 미키지에 발행된다. 그의 커다란 망토, 찌그러진 모자와 오래된 시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26. 1923년 불운한 어린이 주인공의 만화: 유년시절이 신화적 성격을 제시한다

가족과 커플의 관례적인 시각을 공격하고 나서 만화가들은 아동심리학에 대한 모든 사실을 제시한다. 우울하게 표현된, 환각에 사로잡힌 이상한 어린이 스키피는 페르시 크로스비의 크로키 기법을 이용해 그려 1919년 라이프지에서 발행된다. 1923년부터 규칙적으로 발행되었고 K F S지는 1925년에 다시 시작한다. 스키피 스키너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볼게 하는 추한 사건이나 이등 인생 같은 것에 환멸을 느낀다. 피너츠의 찰리 브라운, 프랑스에

서는 고시니와 썸페의 삐터 니콜라처럼 그것은 근대적이고 동시대적인 대단한 시리즈물이다. 왜냐하면 걸모습과 배경이 어떤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동시에 초창기 대부분의 만화가가 표현했던 신랄한 시각으로 유년시절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스키피 시리즈물들을 다른 사람들을 계속하는 것 만화가 페르시 크로스비는 거절했기에 1943년 그의 죽음 후에 이 작품은 사라진다. 1923년에는 외가에 사는 어린아이의 부드러움과 거친 세상을 그린 애드캐터의 저스트 키즈가 시작한다. 결과적으로는 마음씨 착한 이 아이들을 통해 독자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치르는 경쟁이라든가 하는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들은 더 이상 천사가 아니다.

27. 1924년 2명의 어린이 만화가 세계를 흔든다

프랑스에서 루이 포르톤은 원숭이처럼 약삭빠른 파리의 불량소년 비비 프리코틴을 그린다. 미국에서 하롤드 그레이는 매력있고 날씬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고아 작은 애니를 그렸다. 니켈로 도금한 발의 작가인 포르톤은 그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을 돌려버리는 재빠르고 영악한 불량소년 비비 프리코틴이라는 인물을 그린다. 처음에 그는 경마장의 소년마부였다. 그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곳을 뛰쳐나오고, 제비뽑기와 즉각적인 대꾸를 하는 기술을 발전시킨다. 그는 터무니없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펠레야 펠 수 없는 공범 리즐뷔스 주주라는 흑인 친구를 사귀게 된다. 이 시리즈물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세상을 농담과 이국에 대한 모험심으로 가득차게 그렸기 때문에 그 시대의 소년들에게 그들의 작은 방을 떠나야 한다는 꿈을 꾸게 함으로써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선 그의 만화는 르브르 일위스트레이에서 발행되고, 비비 프리코틴은 다양한 삽화없이 1928년부터 앨범으로 출판된다. 십여 명의 만화가들은 이 모험을 그린 만화를 그리는 것에만 전념하고 그리하여 129개가 넘는 제목으로 출판된다.

미국인들은 작은 고아 애니에 감격한다

이미 검프를 그린 만화가 하롤드 그레이는 시카고 트리뷴지에 데뷔할 때부터 유머와 애정을 가진 작가이다. 애니는 그녀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녀의 개 샌디(초창기에는 그녀의 인형 에밀리 마리가 나왔으나 없어진다)는 그레이의 미칠 듯한 상상력에서 태어난 엉뚱한 인물들과 사귀다. 그녀를 좋아해서 양녀로 삼을 억만장자를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변한다. 부유

한 보호자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그녀는 많은 상식과 가지게 되고 그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한다. 짧은 미니스커트에 재판관식의 윗도리를 입은 그녀는 작은 구세주처럼 학대당하고 불행한 이들을 도와준다. 초창기에 미국의 산업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항을 한다. 결국에 그녀는 점점 유평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더 날씬하고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되어간다.

28. 1925년 새로운 영웅들의 등장: 지그와 푸스의 창조

지그와 푸스는 프랑스인들에게 그 시대를 특징지어주고 모든 대중, 어른들에게 열정을 주는 만화로 기억된다. 파리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흥분한 것 같아 보이는 행복한 분위기 속에 알랭생-오간에 의해 창조된 지그와 푸스는 한 명은 크고 갈색머리를 가졌고 다른 한 명은 동그랗고 적갈색 머리를 가진, 유쾌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 두 명의 소년들이다. 그들은 거대한 세상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고 떠나라는 모험정신을 주었다. 그들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기회가 부족한 이 대륙을 매번 방황하며 미국에 매료된다. 또한 그들은 인도 아프리카를 여행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남극에 도달해 그들을 떠나지 않는 장난꾸러기 펭귄 알프레드를 만난다. 이 만화는 부족한 배경 기법스타일과 세련된 형식을 가진 그래피즘의 기원이 된다. 만화의 미적인 면, 인물표현의 특징, 상황의 독창성은 이 시리즈 물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것이다. 우스꽝스럽고 매력 있는 독창성을 지닌 이 만화는 계속해서 출판되었으며 1954년까지 알랭 생-오간에 의해 계속해서 간행된다. 1963년부터 1970년까지 틴틴을 그리기 위해 지그와 푸스를 채택하고 근대화해서 그것을 다시 표현한 <마셜 탈롱의 아빠>를 그린 재능있는 그레그에 의해 그려진다. 지그와 푸스의 첫번째 만화 <알프레드 안녕>은 르 디망쉬 일위스트레 주간지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 즉석에서 그려진 만화였다. 독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고 연재는 계속된다. 이 시리즈물들은 프랑스에서 대단한 개척자로서 중요한 현상을 구성하는 역할을 했다. 우선 이 만화는 대사를 넣는 둥근 테 기술을 사용한다. 그리고 만화 영웅이라는 스타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전쟁 전에 알프레드는 잡지에 <알프레드 안녕>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내보였었다. 그는 미스팅그와 조세핑 베이커의 상송과 동물만화를 이용하여 영웅을 만들었었다. 1974년 앙굴렘 축제의 마스코트로 선택된 지그와 푸스에서 나온 알프레드 펭귄이 그것이다.

29. 1926년 두 명의 만화가는 그들만의 데생기법을 사용한다

이 시기 벨기에인 헤르게는 초보단계였지만 미국인 세가는 이미 대가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3년 후에 헤르게는 틴틴을 그리기 시작하고 세가는 뽀빠이에게 생명을 준다. 이미 미래의 뽀빠이 친구인 올리브를 그린 세가는 1919년 더 럼블 테아트르에 진출한다. 이 시리즈물을 보충하면서 1926년부터 사뽀를 일요일의 만화에 발행한다. 사뽀는 대머리에 코수염을 기른 포동포동하고 작은 남자이다. 긴 턱수염을 기른 미친 학자의 부정과 끔찍한 발명에도 냉정한 증인이다. 사뽀에게 주어진 공간은 매번 개그를 내놓기 위해 매우 짧은 시나리오를 쓰라고 중요하다. 매우 우스운 이 이야기, 간단한 그림은 완전히 상식 밖의 일이었다. 1926년부터 그녀는 끊임없이 다시 표현하고 세상의 여러 신문에 발표한다. 프랑스에서 특히 지역 일간지에 발행된다.

19세의 헤르게

조취 레미가 본명인 헤르게는 벨지의 보이콧 운동 속에서 최초의 만화를 출판한다. 그것은 풍뎡이 나라의 토토르이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열정적인 작품이었다. 왜냐하면 대담한 성질의 토토르는 젊은 모습과 둥그런 모습으로 틴틴의 전신임을 알렸다. 그러나 같은 시간 속에서 그래픽의 완성도면에서도 매우 혁신자 격인 이 시리즈물을 바라보는 시선 평범하고 무미 건조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상업적인 실패만을 쉽게 말했다.

III. 결론

이러한 탐색을 통해 이제 만화는 결코 처음처럼 유머스럽고 천진난만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 예로 만화는 힘있는, 이를테면 지식인, 비평가, 정치가를 갖고 있는데 그들을 몰아세울 경우에는 만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만화가 중요한 재정적 후원자를 갖고 있으며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영리추구를 위해 만화를 사용코자 원한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만화가 이렇게 복잡한 지적 문 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화의 시각적인 면에서는 호기심을 끌었다면 심리적 사회적 영향력은 훨씬 광범위하고 더욱 놀랄만한 것이다. 특히 정치 만화의 대상이 되어왔던 위정자들

은 그것의 영향력을 경시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관습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오고 있다. 그리고 작가들의 만화는 전 시대를 한 관점으로 살펴보는 하나의 기록이 된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한 인식과 그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역사적 기록이 되고, 문화사에 대한 귀중한 반영물임에도 불구하고 만화에 대한 비평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아더 아사버거 교수는 ‘연재만화화된 미국인’ 『The Comic-strip American』에서 “수억의 사람들의 주목을 끊임없이 끌어 온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진지한 관심과 연구를 기울여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만화처럼 다재다능하고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것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화에 대한 옹호자와 비난자의 인식의 뚜렷함을 알 수 있으므로 만화는 더욱 연구해 볼 만하고 충분히 가치있는 장르라 하겠다.